

다산포럼

사회통합만이 살 길이다



김 동 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한국은 갈등공화국이다. 한국의 인구 대비 소송 건수는 일본의 4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타협과 양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사회갈등은 OECD 27개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하며, 갈등처리 비용도 최저 82조 원에서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회적 신뢰가 거의 바닥인 나라에서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애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망국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몇 개 들린다. 최근 전국급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그 업계 사용자들이 실업자·비정규직·영세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의 교육비 지원과 권리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쓸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24일 노조 측은 지부 집단교섭에서 이런 안에 합의했고, 계획 중이던 파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회연대기금은 노조 측이 먼저 제안했다. 노조는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앞장서서 자신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선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SK하이닉스는 7일,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사 직원의 처우와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지원하는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련된 재원은 하청계열사 직원 4000여 명의 임금 인상, 복리 후생 등 처우 개선과 안전·보건 환경 개선 투자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 사 측은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업계의 리더십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모델까지 만들어 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노사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열악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지난 5월 광주시는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대에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광주시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한 ‘광주형 상생 사회·경제적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시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한다고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관이 주도하여 노조,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일도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

비록 제안 주체는 각각 다르지만 이 모든 몸부림은 이대로 가다가는 노조나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100만 명이 넘는 실업청년들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거리

에서 방황하고 골방에서 좌절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기관차인 중소기업이 거의 죽어가고 있고,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렵다.

이러한 노사의 양보와 타협, 사회통합의 시도는 사실 동료 이해집단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생태계 회복은 물론 사회 건강성 회복을 위해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경제는 사회의 일부다. 사회의 인프라인 신뢰, 기술, 청년의 열정이 받쳐주지 못하고, 대다수 노동인구가 비정규직, 알바가 되면 대기업만 혼자 좋아질 수가 없고, 좋아지더라도 그런 대기업이나 경제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다. 골목시장의 영세 자영업자가 사라지고 노조가 순종하거나 무기력해지면, 기업 측은 이제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물건이 사라진 사람이 없어지면 다음에는 기업이 무너질 차례다.

민노총,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더 적극적인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게 노조가 살 길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고액연봉자들이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임금, 성과 공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다.

정촌 특·특

‘틀리다’와 ‘다르다’의 차이



정 혜 옥
승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고등학교 시절, 학교 가기 힘든 새벽에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외워지지 않는 단 어장을 들고 항상 똑같은 곳에서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처럼 서 있는 외국인 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이 발동했다. 따분하기도 했지만 항상 그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있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끈기 없는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 영감결에 “Good morning!”하고 인사를 먼저 건넸다. 당돌하게 던진 짧은 인사였지만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그때 그 한마디가 정말로 고맙고 반가웠다고 내 원어인 선생님이자 친구는 말한다.

그날 난 첫 외국인 친구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원어인 교사였

다. 캐나다에서 온 조금은 나이가 든 선생님이었다. 한국에서 강의 경력도 꽤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맞춰 줄 줄 아는 선생님이었다. 그 분은 나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다. 짧은 영어 실력에도 내 눈빛만 보고 뭐가 마음을 읽어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 덕분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부쩍 늘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을 만나도 거부감이나 공포감 없이 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얻었다. 그래서 영어 캠프에도 즐겁게 참가했다. 그렇게 ‘sadey’가 내 영어 이름이 되었다.

그렇다보니 영어만큼은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했다. 회화는 실전으로 선생님과 함께 말하며 배웠다. 매일 아침에 만나기도 하고, 메신저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내서 수다를 떨며 말문을 열어 갔다. 선생님과과의 만남은 단지 영어 공부에 그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피부색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먼저 생겼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싶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결국엔 진로도 자연스럽게 사회복지학을 선택하게

되는 행운을 얻었다.

나는 화순에 살고 있다. 화순에는 다문화 가정의 많다.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등 국적도 다양하다. 예전에는 업무도 못낼 일들을 최근엔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이고 있다. 얼마 전 화순에서 열린 다문화 페스티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전통문화 체험 진행요원을 맡기도 했다. 처음 참가하는 행사라서 긴장하기도 했지만 너무 신나는 경험이었다.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의 만남은 기쁨을 넘어서 행복을 안겨주었다. 화순의 여러 아동센터들 가보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는 꼭 한 두 명씩 있다. 어느 아동센터의 한 아이는 특히 잘 따랐다. 자기 어머니에게 나를 소개시켜줄 때 ‘잘해준 선생님’이라고 말해줘 가슴이 뭉클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자원봉사하는 게 실은 별게 아니다. 그저 함께이 것저것 얘기를 나누며 들어주고 말해준 것뿐인데 말이다. 기억에 남는 가족도 있다. 고등학교 때 알게 된 태국가정이다. 결혼식에서 솜씨는 별로지만 내가 직접 축하를 불러준 존 인연으로 고등학교 시절 내내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는데 이제는 능숙하게 우리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작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남겨준 소

중한 기억들을 생각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만남을 이어가기를’ 하는 바람이 크다. 일상에서 우리는 무심코 ‘다름’ 곧 ‘틀리다’ 거라고 말한다. ‘틀리다’는 잘못했다는 뜻이기에 ‘다르다’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가끔 외국인, 특히 동양계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와는 ‘다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틀리다’ 사람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차가운 시선으로 피한다. 이는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동떨어진 시선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생하는 아이들 중 4%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학생만 해도 6만 명이 넘었다. 이제는 우리와 조금 ‘다름’ 그들의 낯설음을에 한국의 ‘정’의 문화를 알게 하고 ‘감치’를 함께 먹는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 생각한다.

여전히 나는 다문화 가정이 좋고 그들과 잘 어울려 왔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행복하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른 분들도 꼭 체험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제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보자.

社說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불매운동 동참을

일제 전범(戰犯) 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고교생들이 ‘미쓰비시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들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을 한 전범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미쓰비시 불매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도 “역사를 왜곡하고 망각하고 회피하는 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서 미쓰비시 그룹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3차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올 12월까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도 미쓰비시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미쓰비시 머티리얼(전 미쓰비시 광업) 대표단은 지난달 19일 미국 로스앤

젤레스 사이먼 비젤탈 센터에서 미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유독 한국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 요구는 외면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한 할머니는 “매년 8월 15일만 되면 얼마나 두근거리고 원통한지 모른다”며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한국 정부가 말 한마디 못하니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가 더 우리를 농락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단체와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미쓰비시 불매 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불매운동 대상은 미쓰비시 계열의 모든 생산 제품들로, 계열사인 니콘 카메라·기린 맥주·빔프로젝터·에초기 등도 포함돼 있다.

몰려오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철저히

지난 1일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중국 유자망 어선들이 서남해에 몰려들어 해경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업허가가 난 중국 어선들 감시도 버거운데 불법 어선들이 호시탐탐 황금 어장인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선 바짝 차리다 단속을 더욱 고삐를 죄어 우리 어족 자원을 탈취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8월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 1600척 중 유자망 673척에 대한 조업이 허용된다. 중국 어선이 올해 말까지 허가받은 어획량은 총 6만t이다. 따라서 하루 130~15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기·갈치·삼치잡이에 나선다.

하지만 문제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중국 어선이다. 그 심각성은 통계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정부가 지난 2011년 ‘중국 어선 불법조업 종합 대책’을 내놓은 이후로 목포해경에 나포된 불

법 중국 어선은 ▲2011년 135척 ▲2012년 140척 ▲2013년 152척 ▲2014년 94척이었다. 올 들어서도 벌써 55척의 중국 어선이 적발됐다.

해경은 올해 성어기에 대비 각 단위서 별로 단속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 어선들은 선단 규모를 갈수록 키우고, 단속에 대항하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강력하게 제압할 카드가 있어야 한다. 우선 지난해부터 연평도 등 서해에서 운영해 효과를 본 기동전단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형함정, 헬기, 수륙양용 항공기,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 운영으로 올 상반기에만 단속 실적은 2배로 올라가고 중대 위반 사례는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해경 보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약속한 대형 경비함정 도입, 노후 선박 교체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無等鼓

1950년 12월 5일, 한 외신기자가 미국 해병대 제1사단 올리버 P.스미스 소장에게 질문했다. “미국 1해병사단은 후퇴 중인 건가요?” 이에 대해 스미스 소장은 이렇게 답했다. “후퇴라니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는 일은 또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같은 해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선봉에 섰던 미 해병 1사단은 서울 수복 후 다시 배를 타고 원산에 상륙해 장진호 방향으로 진격했다. 하지만 송시룡이 이끄는 중공군 9병단 6고개 됐다. ‘스카이만어 명에 포위돼 전멸당할 위기에 놓였

고도리의 별

1만3000여 명이 불과한 미 해병대는 인해(人海)전술을 펴는 중공군에 막강한 화력으로 맞섰으나 인명 피해가 점점 늘어갔다. 영하 30도의 동장군도 군인들을 괴롭혔다. 마침내 12월 6일 철수 명령이 떨어지자 미 해병 1사단은 ‘지옥불 계곡’이라 불리는 산길을 따라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남쪽으로 나아갔다. 사단본부 가 자리했던 하갈우리에서 남쪽으로 17km 떨어진 고도리에 집결한 후 이를 간담이 내렸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지 막막하던 8일 밤, 눈보라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밝은 별 하나가 빛났다. 이 별은 해병대원들의 희망의 상징이 됐다. 내일은 날씨가 개고, 전투기의 엄호가 가능해져 철수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소망은 이렇게 담았다. “후퇴라니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는 일은 또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후 ‘고도리의 별’(The Star of katori)은 1983년 장진호 전투 참전자 모임(The Chosin Few) 발족 때 공식 로

고가 됐다. ‘스카이 사파리’라는 천문 프로그래밍으로 직접 당시 밤하늘을 찾아다니 이 별은 큰개성대에 가장 밝은 시리우스인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인 지난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쿠티코시에 있는 해병대 박물관에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공식이 열렸다. 기념비는 8각 모양에 2m 높이로, 장진호 전투를 상징하는 ‘고도리의 별’ 장식이 올려질 예정이다. 또 30일에는 한인 2세인 대니얼 유 준장이 미 해병 1사단에게 취임했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 남북 상황에서 통일의 길은 아득하기만 한데... /송기동사회2부장 song@

기 고

미생(未生)선수 육성도 일자리 창출이다



유 재 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지난달 14일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가 복한의 불참과 메르스라는 악재, 그리고 적은 예산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종합우승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언론과 국제대스포츠연맹 회장의 ‘최고로 잘된 대회(Extremely Good)’라는 찬사를 받으며 대회는 끝이났다. 모든 것이 광주시민의 힘이었다. 자랑스럽고, 기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눈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요즘 청년들의 최대 고민은 취업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대 난제로 꼽고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이

라면 취업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제때 취업을 할 수 없으니 결혼이 늦어지고 그러다보니 출산율도 떨어지는 등 직접 사회문제로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스포츠 분야의 고용환경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열악하다.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는 약 3.8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규모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체육진로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도자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체육계와 스포츠산업계의 네트워크 구축, 체육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중·고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올림픽 등 국제대회와 전국체전 등에서 광주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들의 현역활동 기간은 5~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 등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엘리트 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이 스포츠의 인적, 물질 자원들을 공유하고 있다. 탄탄하게 발달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토대 위에서 육성된 꿈나무들이 엘리트 선수

가 되고 이들이 다시 생활체육 지도자로 환원되는 선순환 체제인 것이다. 우리 선수들도 다른 학생들과 다름없이 정규 수업을 받으면서 운동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미래의 직업을 계획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기본적인 체육 인프라가 발달해 지도자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계속 추진하고 시도해야 할 일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광주에서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은 광주시청 4팀, 동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과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광주는행 등 8개 기관 12개팀이다. 6대 광역시 평균 40개팀과 제주도 19개팀, 전남 44개팀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광주시체육회 전문체육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비교했을 때 14번째로 열악하다. 경기도 수원시가 엘리트선수 육성비로 75억원, 안산시가 50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적다. 하지만 광주체육회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26억원을 투자,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과 중간경도의 성적을 가진 선수 등 180여명의 우수선수를 선발해 취업시키고 있다.

광주의 엘리트선수는 육상 등 45개 종목에서 매년 평균 17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 중 우수선수는 3분의 1가량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1~2년의 시간만 주면 충분히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운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자칫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은 실업팀을 창단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 현재 실력으로는 전국대회 상위 입상은 어렵지만 앞으로 1~2년동안 훈련하고 기량을 연마하면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이 가능한 선수를 꺼안아야 한다. 그래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선수 외부 유출 방지, 전국체전 성적 향상, 광주체육 발전이라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2류, 3류 미생(未生·아직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체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9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자 인 신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